



# 대강절 북상집

✦ 주후재림 대망 2025년 ✦



## 사랑하는 여러분,

이맘때면 우리는 종종 함께 모여 성탄절의 특별한 순간들을 축하하고 나눕니다. 또한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.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.

요한복음 10 장 10 절\*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"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."**

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신지요!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신지요!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'소망'과 '평화'와 '기쁨'과 '사랑'

으로 가득합니다.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들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앞으로 몇 주 동안 매일, 매주, 혹은 시간 되시는 대로 이 묵상집을 통해 선물로 받은 성경으로 서로를 축복하십시오.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온과 교감의 순간을 경험하세요. 시간이 되시면 더 깊은 묵상 질문을 생각해보거나 다른 이들과 소망, 평화, 기쁨, 사랑을 나눠보세요.

주님의 오심을 함께 대망하며,

## 아나 스크라

기도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 
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

\* 이 묵상집에 인용된 성경은 한글 개역개정판을 사용했습니다.

# peace



Second Sunday  
of Advent

평화란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. 분주함 속에서도 쉼을 주는 상태이자 고요한 공간.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존재하는 평온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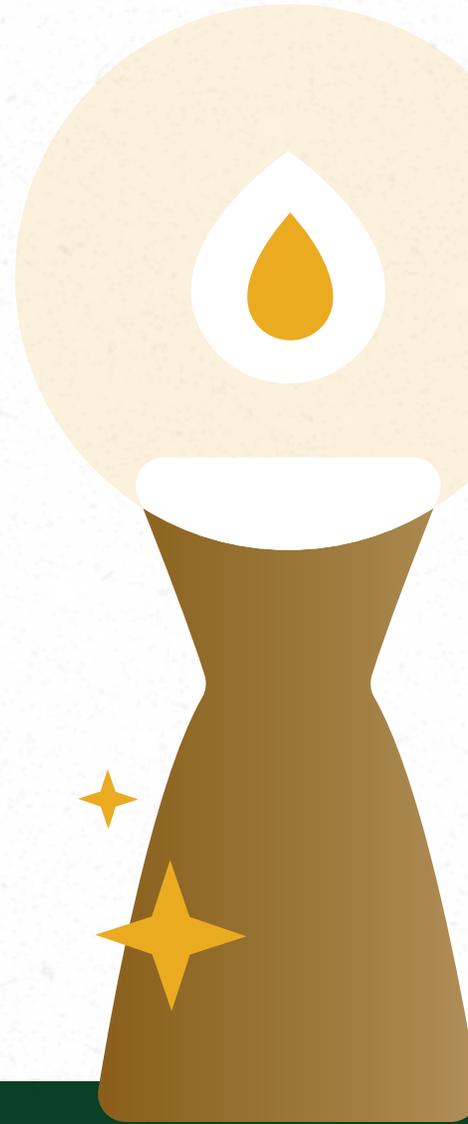
성탄절에 따른 여러 일들과 약속들과 소음이 우리들을 휘감는 가운데, 대강절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평화를 깊이 호흡해 보세요.

그리고 기억하세요,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(요한복음 10:10). 이는 곧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안, 두려움보다도 더 큰 그분의 평화로 이미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.

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쉬게 되길 원합니다. 잠시 앉아 함께 고요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봅시다.

## 함께 기도합니다.

평화의 왕이신 주님, 우리가 이 대강절에 주님께 나아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, 분주함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찾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

## 한 주간의 묵상:

여러분은 어디서 평화를 찾으십니까? 어떤 사람, 장소, 찬양, 혹은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의 쉼으로 인도하시나요? 할 수 있는대로 바로 그자리에 머물러 보세요

이 대강절에 분주하거나 힘든 마음을 가진 이에게 어떻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?

*peace* ✨ **Sunday, December 7**

**말씀**

이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.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. - 요한복음 16:33

**묵상**

“담대하라!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분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지만,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.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일에도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확신하며 믿기 때문입니다.

이번 대강절에 우리에게 “담대”함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?

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.

✨ **Monday, December 8**

**말씀**

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. - 이사야 26:3

**묵상**

완전한 평화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,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,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. 예수님이 누구신지, 즉 그분이 우리 구주이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할 때,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.

완전한 평화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? 몇 가지 그 평화를 묘사하는 말을 적어서, 대강절 기간 동안 냉장고에 붙여두고 되새겨 보세요.



*peace* ✨ **Tuesday, December 9**

**말씀**

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. - 데살로니가후서 3:16

**묵상**

“때마다,” “일마다,” 또 “모든 사람에게” 라는 말들에서, 우리 “평화의 주님”이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! 주님께서서는 **항상, 모든** 일에 우리 **모두**와 함께 하십니다.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, 계실 수 없는 곳도 없으시고, 아무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.

잠시 눈을 감고 평화의 주님께서 오늘 건네주시는 특별한 선물, 모든 사람에게, 어디에서나 베푸시는, 그 평화를,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

✨ **Wednesday, December 10**

**말씀**

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. - 골로새서 26:3

**묵상**

평화는 우리 마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. 감사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 삶에 가져다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.

감사 일기를 시작하여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적어 보세요.



*peace* ✨ **Thursday, December 11**

### 말씀

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,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.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- 빌립보서 4:6-7

### 묵상

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의 평온함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. 불안과 초조함은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며, 이를 떨쳐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,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, 하나님은 그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!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 평화가 임하고, 불안과 초조함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게 됩니다.

오늘 우리 마음 속에 품은 걱정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하나님께서 “모든 일(/상황)에”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,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.

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평화를 인해 감사드립니다!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.

(시간이 되시면, 전은주 작사/작곡, “내 영혼은 안전합니다”를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평화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.)



*peace* ✨ **Friday, December 12**

**말씀**

평안을 너희에게 끼니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. - 요한복음 14:27

**묵상**

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 폭력, 전쟁, 침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처럼 전혀 평화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에,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.

세상의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?

✨ **Saturday, December 13**

**말씀**

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 
- 로마서 12:18 ('화목' = 원어로는 '평화'와 같은 말)

**묵상**

대강절 기간에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는데, 우리는 어디에나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대화와 축하의 자리에 이 평화가 임하도록 할 때, 우리의 가정과 교회, 그리고 지역 사회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특별히 투여되어야 할 사람이나 장소나 행사가 있나요?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그분께 간구합니다.

